

反歷史主義者의 認識構造

—최재서의 「諷刺文學論」을 중심으로—

朴 南 燾*

차 례

- | | |
|---------------|-----------|
| I. 序 | IV. 남은 問題 |
| II. 최재서의 認識構造 | V. 結 論 |
| III. 自己諷刺의 意義 | |

I. 序

최재서의 「諷刺文學論」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그가 이 글 속에 덧붙여 놓은 <文壇危機의 打開策으로서>라는 문제가 잘 암시하고 있듯이 1930년대 중반 군국주의적인 준전시 체제로 치닫기 시작했던 일제가 KAPF를 완전히 해체시킴으로써 야기되었던 문단의 공백기 속에서 <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고 아울러 創作地帶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졌다는 비평사적 측면에서 부각되는 의의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외부상황의 압박에 의해 규정된 문단, 특히 비평계의 혼란 속에서 그는 어떻게 그의 비평적 자아를 확보해나갔는가, 바꾸어 말하자면 이 글이 그의 비평체계 속에서 지니는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 측면이 된다.

前者의 측면에서 「諷刺文學論」을 조명한 경우는 김윤식 교수를 들 수 있다. 그는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글이

문단 위기 타개책으로 제창된 후우머니즘론이 미래적 입장만을 내세움으로써 창작과 실제 비평에 함께 공헌을 거듭하고 있었던 당시 문단의 혼란의 타개책으로

* 동래여자전문대학 강사

서, 그 현실적 요청과 의의가 있는 것이다.¹⁾

라고 보면서 최재서가 말하는 풍자문학이란 <知的 手段이 動員된 일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측면에서 본 입장은 조동일 교수의 「崔載瑞」를 들 수 있다. 최재서를 <지식의 원천에 매여서 자기 창조를 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느라고 주체성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재능과 노력이 오히려 파탄의 자극제가 된>²⁾ 비평가로 파악하고 있는 조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에 따라서 또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중계 방송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주장으로 삼았으니, 자연히 주장의 목록이 다채로울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主知主義 文學論, 諷刺文學論, 新體制文學論이었고, 이것들을 검토해 보면 독창성은 없어도 변화의 일관성은 찾을 수 있다.³⁾

고 보면서 <현대가 혼돈한 시대라고 하는 명제를 찾아 좌절을 합리화> 시키려고 한 것을 「諷刺文學論」의 집필 동기로 파악하고 있다.

조동일 교수와 같이 後者의 측면에서 있긴 하지만 정반대로 최재서의 비평적 자아에 주체적인 측면을 부여하면서 그의 구체적 비평 목록들 속에서 그의 세계관의 본질 및 발전 전개과정을 귀납하고자 하는 작업은 필자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⁴⁾

그런데 물론 이 글의 긍정적인 관심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새삼스런 확언에 있지 않다. 이제껏 조명된 관점과는 다른,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諷刺文學論」의 의의를 조명해보자는 게 필자의 목적이다. 앞에 소개된 선행연구들은 모두 「諷刺文學論」의 내용 자체에만, 그 속에서 최재서가 전개하고 있는 표면적인 논리과정의 해석·분석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방법은 가장 고전적이고 필수적인 것이긴 하

1) 김윤식, 『한국근대문에비평사연구』(일지사, 1980), p. 247.

2) 조동일, 「최재서」, 『한국문학사상사론』(지식산업사, 1979), p. 381.

3) 조동일, 같은책, pp. 372~373.

4) 참고 「최재서論」(부산대학교 대학원, 1983.8), pp. 74~81 참조. 「최재서論」이 최재서에게 주체적인 비평적 자아를 부여하면서 그 자아의 운동과정을 추적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이 글 즉 「反歷史主義者의 認識構造」는 그 목표 때문에 희생된 부분들—특히 그의 인식구조의 해명 및 비판—의 측면을 논함으로써 前者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다. 그러나 비평사는 문자 그대로 비평의 역사, 비평정신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위의 접근방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사적 해석태도를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굳이 비평사에 특유한 역사해석방법론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 다만 「諷刺文學論」을 하나의 역사적 所産으로—역사적 인식대상으로 간주해 놓고 인과관계의 맥락 속에서 고찰하는 입장에서 있 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볼 때 최재서의 「諷刺文學論」은 결과의 측면이 된다. 문제는 결과로서의 이 비평목록을 낳은 원인의 측면을 꼼꼼히 따져 보는 일이다. 그 어떠한 역사적 사실도—「諷刺文學論」도 그것의 현재적 의의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엄연히 역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그것의 원인의 측면을 배제할 경우 그 접근은 오류를 낳을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원인의 측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당대 문단을 공백기로 만들고 최재서로 하여금 〈打開策〉을 쓰도록 한 의적 상황, 소위 그 타개책이 된 〈自己諷刺〉라는 문학적 개념, 아니면 〈좌절의 합리화〉 등등 일단 여러 것들이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곰곰이 따져 볼 때 이들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원인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적 상황〉 따위가 「諷刺文學論」을 썼을 리는 없다. 〈좌절을 합리화〉시킨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야만 한다.

그 본질적인 원인, 그것은 바로 최재서의 세계인식구조이다. 이 구조의 해명 다음에야 「諷刺文學論」의 진정한 의의가 드러날 수 있다.⁵⁾ 당시 상황을 그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의 인식방법은 당대 현실과 어떤 관계에 의해 설정되는가? 그의 세계인식방법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등등의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해답으로 주어진 그의 세계인식구조에 의해 서술된 결과로서의 「諷刺文學論」

5) 그의 세계인식구조에 의해 비단 「諷刺文學論」만의 의의가 밝혀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의 비평목록들 중에서 記述的·소개적·설명적인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즉 그 나름의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들은 이 구조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구조의 해명이 최재서 비평세계를 드러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뒤에 김용규 교수의 「최재서의 문학이론」의 경우를 살펴 보면 잘 확인된다.

을 올바르게 조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글은 최재서의 「諷刺文學論」을 **축점으로 하여**⁶⁾, 단순히 이 비평에 나타난 최재서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논리전개를 가능하게 한 그의 인식구조를 규명해보고 그 규명된 구조의 맥락 속에서 「諷刺文學論」의 궁극적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 그리고 나아가 필자는 그러한 예상 성과에 의해 최재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이와 상관되는, 비평사적 접근에 고유한 문제점들을 거론해보고자 한다.

II. 최재서의 인식구조

그의 인식구조를 밝혀 내는 작업에 앞서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것들은 과연 「諷刺文學論」 속에 최재서 자신의 인식 행위가 들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우선 최재서는 다른 글에서 비평가의 직능을 판단적인 것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수 없다.

리처즈도 말한 바와 같이 비평가 본래의 직능은 사회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의사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현대가 위기에 직면하여 판단적 직능을 확보하려하는 데에 현대비평의 성격이 그 동기를 가진다고 생각한다.⁷⁾

여기서 최재서는 현대의 위기를 진단하는 비평가의 판단적 직능을 긍정하고 있는데 이 <판단적 직능>은 바로 비평가의 능동적인 인식작용에서 수행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그리고 이 <판단적 직능>이 수행된 것들 중의 하나가 「諷刺文學論」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自己諷刺>의 개념이 설명되고 있긴 하지만 그

6) 「諷刺文學論」에 축점을 맞춘 것은 이 비평목록이 쓰여진 시기가 결박한 위기의식으로 출판된 시기임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이 내용에 쏟아넣은 최재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 자체가 다른 비평목록보다 선명하게 부각될 개연성이 크다는 필자의 판단을 담고 있다.

7) 「현대 비평의 성격」, 『최재서 평론집』, p. 1.

것은 이 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한가롭게 풍자일반이나 자기풍자를 소개·해설하고 있을 상황도 못 되었다. 당대 위기의 <打開策>을 제시하기 위한 <판단적 직능> 속에는 그 나름의 확연한 가치판단—인식행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諷刺文學論」에서 그의 인식구조를 규명해내고자 하는 작업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제 인식구조를 구체적 내용으로부터 환원해보는 작업으로 들어 가기로 한다.

Ⅱ-1. 최재서의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그의 시대에 대한 인식이다. 왜냐하면 세계 안에 존재하는 한 인간이 자신의 존재양식을 선택 혹은 규정하게 되는 것은 결국 세계에 대한 그 자신의 해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재서가 바라 본 현대사회 자체의 특질은 과도기적 혼돈성이다.

현대가 혼돈하다 함은 다시 말하면 현대가 의거할 만한 전통과 신념을 잃었다는 말이다. 이 잃어진 전통과 신념에 대신할 만한 전통과 신념을 탐구하고 모색하는 정신이 곧 불안과 초조를 특징으로 삼는 현대정신이다.⁸⁾

라고 현대의 혼돈성을 지적하고 있는 그는 리차즈의 <가치론>을 소개한 끝부분에서 <과도기> 인식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과도기에 서 있다. 이 과도기의 성질과 내용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과도기는 국부적이나 지역적 과도기가 아니라 세계인류가 생활의 근저로부터 동요를 받고 있는 과도기라는 것을 부언하면 그만이다. 그로부터 생겨나는 혼미, 의혹, 분열, 반항, 질서, 파피—우리는 지금 아찔 없이 생을 낭비하고 있다.⁹⁾

그 당시의 세계정세가 파시즘의 대두와 이에 맞서는 서구 자유진영과 코민테른 진영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긴장과 악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음으로써, 이러한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눈에는 분명 세계적 인 위기의식이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

8) 최재서, 「비평과 과학」, 『최재서 평론집』, p. 68.

9) 최재서, 「비평과 문학」, 『최재서 평론집』, p. 83.

다. 그러나 일제 강점 아래에 놓인 식민지적 특수성을 완전 배제한 채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과도기는 국부적이나 지역적 과도기)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인식의 결정적인 한계를 볼 수 있다.

하나의 <특수>로서의 조선 식민지 상황을 간파한 채 그의 표현에 의하면 <현대>가 되는, 20C 서양의 정치·문화의 현상이 <보편>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에 특수적인 문화현상을 전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서구 추종적 의식구조의 소산이다.¹⁰⁾

조동일 교수는 최재서의 이런 측면을 <서양문학이 바로 세계문학이라는 당연한 전제라고 믿>는 소위 해외문학과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앞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재서의 이러한 세계인식 태도를 단순히 해외문학과와의 특성으로 몰아 넣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의 인식—서양을 <보편>으로 간주하고 조선의 <특수성>, 즉 식민지적 상황을 배제하는 태도—을 최재서의 인식구조를 이루는 기본향으로 설정해야만 한다. 인식의 차원에 올려 놓고 논의를 전개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인식의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인식태도라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최재서의 인식태도이다. 그것도 최재서의 인식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향으로서 그러하다.¹¹⁾

최재서의 비평세계를 논함에 있어서는 바로 이 점—기본향으로서의 그의 세계 인식—을 전제해야만 한다. 이 전제를 간파함으로써 야기되는 논리적 악순환의 예로 김 홍규 교수의 「최재서의 문학이론」을 들 수 있다. 물론 김 교수도 최재서의 <危機意識의 一般性 내지 國際主義>가 <西歐의 危機意識의 테두리에서 별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 지적이 최재서 비평세계를 설명하는 기본향으로서 다루어 지지

10) 이에 대한 자세한 논구는 참고 「최재서論」에서 이루어진바 있다. p. p. 18~30 참조.
그리고 또한 「亂刺文學論」에서도 위의 같은 인식태도가 나타난다. 즉 조선문학의 위기는 그의 문맥 속에서 이러 저러 끌려다니다가 결국 <現代는 말할 것도 없이 過渡期이다>는 식으로 일버무려지고 있다.

11) 그러고 최재서의 이러한 인식태도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다. 우리 정치·문화 속에는 여전히 서양의 모방을 한국의 발전과 동일시하는 사회심리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당당히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않고 논의가 다 이루어진 후에 부수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재서의 서구의존적 세계 인식태도는 그의 비평체제 속에서 결코 사후처리적으로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의 모든 비평내용들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인식축으로서, 즉 원인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統合된 문학 인식의 추구는 또한 그가 처한 社會的·文化的 狀況의 문제에 대한 응답의 노력이기도 했다. 즉 崔載瑞 자신의 말처럼 문학과 사회를, 개인과 시대를 가치 의식과 현실을 포괄할 수 있는 秩序에의 意欲을 그것은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의 문학관과 이념은 한국 현대문학이 지녀 온 宿題의 핵심을 향해 크게 전진한 한 걸음이었다.¹²⁾

고 김교수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최재서의 비평내용들은 (필자가 계속 사용해 온) 기본항으로서의 그의 세계인식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항을 배제한 가운데 최재서 문학이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난 뒤에야 비로소 생각한 듯 바로 뒤에,

……스스로가 처한 社會·文化的 상황의 혼돈과 고통을 그 핵심에서 보지 못하고 막연한 世界的 危機意識과 동일시한 것이 그 원천적인 오류라고 생각된다.¹³⁾

고 사후처리적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언급함은 일종의 순환논리가 된다.¹⁴⁾

Ⅱ-2. 앞에 언급된 기본항으로서의 그의 세계인식과 결부되는 것으로서 그의 인식태도의 두번째 특성을 들을 수 있다. 그의 근본적인 세계인식태도—조선의 특수성 관과, 서양을 <보편>으로 파악—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한 후에 성립된 관념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인식구조는 현실과 완전히 유리된 관념체제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최재서가

12) 김홍규, 「최재서의 문학이론」, 『국문학 논문선』, (민중서관, 1977), p. 273.

13) 김홍규, 같은 곳.

14) 조동일 교수의 「崔載瑞」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비록 인식의 차원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넓은 의미의 「해외문학」파에 최재서의 비평 지향의 특성을 포함시켜 한 것은 그 서구지향적 의식구조가 최재서의 쉰 비평체제의 원인으로서 작용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렇듯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요소를 부수적인 결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 「최재서의 문학이론」의 근본 오류가 된다.

그러한 공허한 관념체계 속에서 다시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인식의 악순환을 되풀이한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현상에서 귀납한 총체적 인식을 통해서 다시 현상을 해석·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는 완전히 유리된 인식태도를 설정해 놓고 다시 그 인식으로써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악순환을 드러낸다는 말이다.

이 경우 최재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현상과는 완전히 유리된 인식을 가지고 다시 그 현상을 해석함으로써 빚어지는 관념조작의 기능이다.

社會的 危機와 文學的 危機를 혼동하는 이론을 우리는 흔히 본다. 社會的 危機가 文學的 危機의 주요한 원인이 됨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社會的 危機가 그대로 文學的 危機가 되는 것은 아니다. 社會的 危機가 文學的 危機로 되려면 모든 信念의 상실이 의식화되어야 한다. 즉 사람의 감정생활이 의거할만한 모든 지주가 붕괴하여 無信念이 사람들의 생활태도로 화할 때에 비로소 文學的 危機는 도래한다.¹⁵⁾

그러면 이상과 같은 文學的 危機가 朝鮮에도 도래하였느냐? 그렇다고 나는 대답한다. 인생 三十을 지나고서도 오히려 文學 밖에는 없다는 순직하고 강렬한 신념을 가지고 文學에 종사할을 가능케 할 信念과 支持가 朝鮮에 있는가? 그는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만한 大義名分을 가지고 있는가? 그의 순간 순간의 부분적 自我 뿐만 아니라 自我 전체를 통일할만한 態度와 그의 사색생활 뿐만 아니라 생활전체를 규율할만한 主義나 原理를 가지고 있는가? 아무 것도 없다.¹⁶⁾

그의 표면적인 논리 전개과정에는 손톱만큼의 빈틈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논리전개에 있지 않다. 이런 논리를 가능하게 하는 그의 인식이다. <아무 것도 없다>는 그의 답변은 당대 현실의 승인 내지는 합리화의 기능을 낳게 된다. <사회를 통일할만한 傳統도 信念도 없>¹⁷⁾게 된 원인의 측면은 전연 도외시하고¹⁸⁾ 막연히 <현대의 과도기적 혼돈 상태>와 같은 막연한 원인에

15) 최재서, 「풍자문학론」, 『최재서 평론집』, p. 187.

16) 같은 책, p. 188.

17) 같은 곳.

18) 조선 식민지 사회의 사회·경제·문화 구조의 측면.

의거하면서 信念이나 전통 상실 운운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당대 현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관념조작의 기능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관념조작은 결국 패배주의의 승인으로 연결된다.

이런 의미에서 비슷한 시기에 反휴머니즘의 범주 속에서 패배주의를 노정시켰던 최재서와는 정반대의 휴머니즘을 주장한 백철의 중요성을 강조한¹⁹⁾ 조동일 교수의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번째로는 이런 관념조작의 측면에서 더 나아가 그릇된 인식 속에서 현상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단하고 그 현상 속에서 작가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소위 <판단적 직능>을 수행함으로써 빛어지는 결과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가 <타개책>으로서 제시한 것이 <批評的 態度>를 가짐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自己諷刺>의 세계이다.

그가 말하는 <批評的 態度>란 외부세계를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승인하는 <受容的 態度>와 외부세계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拒否的 態度>의 절충으로서 수용도 거부도 아닌 <消極的 破壞>의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批評的 態度>는 최재서 특유의 <知性>에서 필연적으로 배태되는 태도이다. 그의 지성론은 행동을 순전히 개인심리주의 만으로 환원시키고 있으며 최소한의 행동 가능성마저도 유보하고 있다. 리처즈의 이론, 그 중에서도 <충동의 만족이 외면화하지 않고 發端的 行動에 그치고 마는 상태>를 이상으로 하는 게 그의 지성이다. 즉 충동의 자태가 일일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수성이 거칠고 유치함을 표시하게 되고마는 그런 세계이다.

이런 <비평적 태도>가 기낼 수 있는 마지막 골목이 되는 <自己諷刺>는 어떠한 것인가?

우선 최재서는 여기서 諷刺의 의미를 <복수>라는 의미의 개인심리주의적인 용어로 해석한다. 이러한 심리주의적 해석 자체도 비평사에서는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최재서가 풍자물

작가가 자기의 실망, 허무, 무가치관을 해부하고 비평하는 냉소적 심리의 발로

19) 조동일, 같은 책, pp.374~375.

라고 한정한 것은 金裕貞의 「봄, 봄」이나 蔡萬植의 〈太平天下〉 같은 데서 실제로 나타난 적대적 질서에 대한 풍자를 약화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구실을 했다.²⁰⁾

고 지적한 점은 당연하다. 풍자의 심리적 해석자체가 바로 앞서 언급한 기정사실의 승인, 패배주의의 수락에서 비롯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풍자는 〈전도된 세계는 자신을 전도된 세계로 서술함으로써 현존하는 세계의 전도성을 표현〉²¹⁾하는 것이며,

오히려 모든 것이 달리 존재하는 이 반전상태는 우리에게 있어 존재하는 것의 유일한 전도대물 일종의 회화경(戲畫鏡)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다. 세계의 전도성에 부가해서 전도된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은 그 세계의 전도성을 반대되게 표현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분명히 모든 풍자가 지닌 뜻이다.²²⁾

이런 인식론적인(헤겔의 전도된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측면을 지닌 풍자를 개인심리주의로 약화시켜 놓은 최재서는 더 나아가 〈타개책〉으로서의 自己諷刺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自己諷刺는 무엇보다도 現代의 산물이다. 전대엔 생겨날 수 없었던 現代의 독특한 예술형식이다. 왜 그러냐 하면 自己諷刺는 自意識의 작용이고 自意識은 自己分裂에서 생겨나는데……따라서 이 自我는 될 수 있는대로 외부의 영향에 적응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생존은 즉 행동이다.……現代人は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다음 순간 非自我로 하여금 이를 관찰하고 비판하고 조소케 한다.²³⁾

즉 그에게 있어서 自己諷刺는 자아의 분열, 자아의 세계에 대한 복수극이다. 이것은 〈人生罵倒〉이며 심지어 《失樂園》의 〈사단의 심리와 공통되는〉 인간 자체에 대한 모독이 된다. 아무리 그가 뒤에 〈인생의 재출발〉이라든지 방법론적 〈회의〉라든지 하는 전체를 남겨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한국현대문예사에 있어서 가장 깊숙히 도달해 있는 패배주의의 모습을 볼

20) 조동일, 같은 책, p. 376.

21) 황태연, 『헤겔精神現象學 해설』(이삭, 1983), p. 108.

22) 황태연, 같은 책, p. 107. 헤겔의 〈전도된 세계〉의 개념을 풍자 장르와 관련된 문학적 용어는 p. 108, 주 13) 참조.

23) 최재서, 「풍자문학론」, pp. 194~195.

이 自我와 非自我의 분열은 헤겔의 문맥에서는 主人과 奴隸의 대립이 되며 그 대립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한 의식〉이나 〈회의주의〉가 된다.

수 있다.

당대 상황의 위기의식에서 마침내 인간 존재자체의 모독으로 끌고 가는 그의 논리—이것은 조선총독부의 그 어떤 검열관도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논리이다. 이런 그를 우리는 허위 의식의 창조자라고 부를 수 있다. 自己諷刺란 당시 문단의 <타개책>이 아니라 <자살책>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Ⅱ-3. 이제까지 현실과 완전 유리된 그의 인식구조가 어떠한 부정적 악순환을 보여 주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에 관련하여 한 가지 논의되어야 할 점은 그의 순 비평체제의 범주 속에서 볼 때 이제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그의 인식구조는 관념적 차원 속에서 독자적인 운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운동의 보기가 그의 비평적 지향점인 개성과 성격의 통합이다.²⁴⁾

최재서에게 있어서 민족이나 역사 따위는 극히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이 목표에 대해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 현실이야 어떻든 상관 없이 자신의 관념세계의 충족만을 지향해 나가는 관념세계의 독립성이 그의 인식구조의 또 한 특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天皇歸—>을 받아 들임으로써 한민족의 전통성을 완전히 회생시키는 파시즘 문학의 선봉장으로 나선 마당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전개에 논리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서사시에서 무엇보다도 부러워할 것은 인물의 개인적 가치가 완전히 보전되어 있다는 점과 또 개인과 사회 또는 인물과 시대가 같은 감정과 같은 신념에 통일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양자는 서로 因이 되고 果가 되어 이루어지는 특질로서 근대작가가 아무리 부러워하고 노력하여 보아도 도달할 수 없는 고대의 특권인 것이다.²⁵⁾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친일행각 사이에 논리적 연속성이 없는 파탄으로 이어져 있다면, 최재서의 경우에는 친일행각 이전과 이후의 논리적 연속성이 너무나 정연한 이론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관념세계의 독자적 운동양상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해방 후 이광수가 「나의 고백」이라는 그 나름의 몸부림을 칠 수 있었던 반면 최재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게 되는 근거가 된다. 오히려 그는 해방 이후 4·19 이후까

24) 참고 「최재서論」, pp. 44~58.

25) 최재서, 「서사시, 로맨스, 소설」, 「최재서論」, p. 13.

지의 우리 근대사 속에서 무질서를 탓하고 질서를 동경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언제나 현실과는 유리된, 관념적 인식 속에서만의 독자적 세계구축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바 우리는 이제 그를 반역사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그의 自己諷刺라는 문단 위기의 <타개책>은 관념 속에 고립된 그의 비평적 자아의 인식한계를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自己諷刺의 의의를 개성의 차원에서 조명하여 문학사적인 조망 속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비평사의 역사해석에 파생되는 문제들을 간단히 검토해보는 것이다.

Ⅲ. <自己諷刺>의 의의

최재서가 제시한 自己諷刺란 그의 문맥 속에서 볼 때 <현대의 산물>이 된다. 그런데 그가 <현대의 산물>이라고 한 표현 속에는 다음과 같은 서구 낭만주의 개성의 역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서구 낭만주의가 중시한 個性은 神을 버린 인간이 그 神性を 인간자신에게 부여함으로써 탄생된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 個性은 인간 자신이 스스로의 무한한 능력을 신봉하고 이 능력의 실현에 의한 인류 역사의 진보를 믿어 의심하지 않는 utes的인 자아이다.

이러한 인간 자신의 긍정으로서의 개성의 역할은 서구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중세 봉건사회가 근대시민사회—개인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특징인—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수한 투쟁과정에서 나온, 서구역사의 축적에서 획득되어진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무한한 진보를 확신하던 個性의 의미는 현대, 즉 세계제1차대전을 체험한 서구문화가 상황과 집단에 의해 무기력하게 좌절된 개성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개성매도, 즉 자기풍자의 성격으로 하강하게 되는 것이다.

神의 胎를 품었다고 보이는 人間 個性은 결국 지상에 무엇을 낳아 놓았는가? 이것은 現代人이 피할 수 없는 괴로운 질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불태

엘의警句 가운데서 그 해답을 구한다.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면 나는 지옥을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現代人은 前世紀 사람과 반대로 個性罵倒 가운데에 실재성을 발견한다. 그가 비록 현재에 비교적 완전하다 할지라도 명일의 그는 더욱 불완전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불완전한 個性의 출현은 명일의 세계를 암시하여 준다. 人生讚美는 九十度 회전하여 人生罵倒로 변하였다.²⁶⁾

그러나 당시 조선은 어떠했는가? 개화기를 겪은 다음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교 이데올로기—이것은 동양적 전제주의에 특징적인 개성의 상실을 기반으로 한다—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서구인들이 몇 백년에 걸쳐 싸우고 고민한 끝에 근대시민사회의 문학적 표현으로 등장한 낭만주의를 길어야 15년 정도(1919~1935) 실험해 본 상황이었다. 낭만주의의 실험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디 제대로의 개성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서구에서 다 써 먹고 버린 폐기차와 같은 기진맥진한 세기말 주의적 개성을 들여와 3·1 운동의 좌절로 인해 실의에 빠진 젊은이들의 감상을 촉발시켰던 게 아닌가? 물론 1930년에 들어 오면서 시인들 자신의 독특한 시세계 구축이라는 전개양상 속에서 문예사조로서의 낭만주의적 개성이 아닌 범문예사조적인 의미의 개성은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개성은 식민지의 정치문화적 구조의 한계에 규정을 받는 미숙한 것이었다. 이렇게 서구와는 달리 제대로 커보지도 못한 식민지 문학인들의 개성에 <知性的> 배도라는 명분 아래 스스로 분열하고 조소하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을 강요하는 행위와 다를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남은 문제

마지막으로 논의할 문제는 비평사의 어떤 사실을 논할 때 일어나는 역사 해석태도와 관련된 것들이다.

필자는 줄고 「최재서論」에서 최재서가 일제 파시즘에 영합하게 되는 동기의 하나로서 그의 비평활동 초기부터 설정된 <개성과 성격의 통합>을 이상

26) 최재서, 「동자문학론」, p. 194.

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언뜻 생각하기에 <파시즘의 모탈은 현실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상으로서 설정된 것이다>²⁷⁾라는 설명이 최재서의 친일행각의 합리화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바로 그것인데, 만약 이 의구심을 계속 견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리 문학사—비평사를 일종의 정신사로 혹은 의식사로 이해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태도를 지닌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낯 뜨거운 부분들도 분명 우리의 역사임에는 틀림 없다. 이 경우 진정한 역사의식이란 그런 추악한 역사를 아예 외면해버리거나 단순한 즉발적인 흥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거기에 나타난 진정한 의미를 냉철하게 묻고 답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진정한 의미를 역사의식이 구현된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그 사실을 우리의 치부로 생각하고, 객관적 인식대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자체를 금기시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태도가 아닐까? 이 태도는 어쩌면 최재서의 경우보다도 더 중증인, 식민사관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 우리처럼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근대사를 지닌 민족에게는 어두운 과거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조명하고자 하는 인식태도는 더욱 요청된다고 봐야 한다. 조금만큼의 자랑거리가 있어도 그걸 부풀려 해석하고 아전인수적인 자기도취에 빠져버리는 태도보다는 앞의 태도가 훨씬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최재서가 <개성—성격의 통합>이라는 그의 비평적 지향점을 일제 파시즘에서 견강부회적으로 발전해내는 것은 앞 장 <최재서의 인식구조>에서 언급되었듯이 현실과는 관계 없이 자신의 관념세계의 승리나 만족에만 머무르고 있는 사이비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최재서에 특유한 인식구조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친일 합리화>

27) 참고, p. 94.

운운 하는 태도는 역사적 인식대상의 접근에 있어서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요청을 의식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로 보인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든 그 사실의 현재적 의미의 판단은 그 사실의 정확한 이해라는 제 1 단계의 인식 다음에야 가능하다. 사실의 정확한 이해가 결여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과도한 신비화(자랑스런 사실일 경우)나 아니면 물이해적인 감정의 발산(부끄러운 사실일 경우)이 수반된다.

필자가 <과시증적 모탈은…이상으로서…>라고 한 것은 여기서 언급되는 제 1 단계의 인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 1 단계의 인식 이후에 이루어지는 현재적 의미에서의 판단은 앞서 언급된 <현실과는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결여한 자신의 관념세계만의 총족>이 된다.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 앞에 직면했을 때 앞서 언급된 과도한 신비화나 물이해적인 감정발산과 같은 태도를 진정한 역사해석의 태도로 착각하고 있는(그럴 리야 없겠지만) 사람이 있다면 그는 최재서와는 다른 문맥에서의 반역사주의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V. 결 론

이 글에서 필자는 최재서의 「諷刺文學論」을 중심으로 해서 최재서의 인식구조를 몇가지 분류로 환원해보고자 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재서의 세계인식구조의 기본항은 <특수>로서의 조선식민지 상황을 배제하고, 서양을 <보편>으로 파악하는 서양 추종적 인식이다.

둘째, 그의 인식구조의 기본항에서 파급된 인식현상으로 그의 인식구조는 현상과 완전히 고립된 관념체계를 수립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재서는 이렇게 현실과 유리된 관념체계 속에서 현상을 파악하고 재단함으로써 인식의 악순환의 도범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악순환은 관념조작의 기능과 허위의식의 창조기능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구조해명작업에 의해 다음으로는 「풍자문학론」의 결정체인 自己諷刺의 의의를 살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비평사에 있어서 역사해석의 문제—사실과 해석의 분리—를 살펴 보았다.